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2년 5·6월 제267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앙첸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서경원 편집인 : 이석호 인쇄인 : 임헌표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화합 · 상생 · 발전…충기 전통 계승위해 노력"

〈제37회 총동문정기총회 속개〉 제19대 총동문회장에 서경원 동문(15회) 선출

충기총동문회 신임 회장으로 5월 27일 서경원 동문(15회)이 선출됐다. 서경원 동문은 지난 3월 25일 모교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7회 정기총회가 휴회한 후 5월 27일 저녁 모교 세미나실에서 속개된 자리에서 참석 동문들의 만장일치 지지로 제19대 총동문회장에 뽑혔다.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동문님들께 묵념을 드리고, 내빈 소개 등에 이어 강신열 18대 총동문회장은 임시대의원의장을 맡아 바로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강신열 18대 총동문회장은 "회장 선임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절차를 떠나 회칙 개정을 먼저 하게 됐다"며 "3월 25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방치책으로 19대 집행부가 수월하게 동문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동문회 회칙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칙이 추가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으로 하고, 회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선출에 대한 관리를 하며, 위원장은 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고문, 자문위원, 당해년도 임원 중 위원장의 호선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밖에 기존의 선임부회장 호칭을 수석부회장으로 변경하고, 총무국 명칭은 사무국으로 변경하는 회칙도 통과했다.

이어 19대 차기 총동문회장 선출에 들어가 후보로 추천된 서경원 동문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강신열 18대 회장은 단상에서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기를 전종현 15대 회장에게 넘겼고, 전종현 15대 회장은 서경원 신임 회장에게 기를 넘겨주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남상복(14회), 정두현(15회), 임동현(21회) 동문이 선출됐다.

어려운 과정을 딛고 총회를 원만하게 마친 후 서경원 19대 총동문회장과 동문들이 화합을 다짐하며 기념촬영했다.

서경원 신임 회장이 총동문회기를 이어받아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서경원 회장은 취임사에서 "모교와 동문은 40여 년의 사회생활 동안에 제 곁에서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 주셨고, 제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지근거리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셨다"며 "이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동기들을 중심으로 선배님과 후배님들의 총동문회장 제의가 있었을 때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망설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동문들에게 받은 크나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도 하여 제의를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취임사 2면>

서 회장은 "지난 6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선배님 후배님들께서 오늘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많은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총동문회의 밝은 미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동문회를 일신하고,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정열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들이 이임하는 강신열 전임 회장과 새로 취임하는 서경원 신임 회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단체사진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석호 편집위원장 –

알 림

설송소식 동문회보 전국 지역 · 단체 동문기자 구성

▲동문회보 편집위원장을 맡은 15회 이석호입니다. 동문회보 편집실에서는 전국각지의 지역별 업체별 산하단체에서 활동하는 동문님들의 소식을 전해줄 동문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개 지역과 단체에서 동문기자를 구성하였습니다.

*동문기자 현황

▲인천 강신철 25회 010-8776-1568 ▲안산 김종민 25회 010-8993-5500 ▲안양 김주탁 30회 010-5309-8136 ▲경기북부 임동현 21회 010-3458-2446 ▲경기동북부 임재정 17회 010-7761-5455 ▲천안 이영규 23회 010-5235-6196 ▲공주 오승준 14회 010-6424-6131 ▲포항 이관호 20회 010-3509-4217 ▲구미 류한의 26회 010-8594-2955 ▲마산. 창원. 진해 송장의 12회 010-4852-2648 ▲광양 라신현 23회 010-2612-4317 ▲국군동지회 이은찬 16회 010-9376-0791 ▲충기FC 김성기 24회 010-8582-0371 ▲대전시청 김정규 35회 010-9240-3557 ▲설송회 정기채 22회 010-3411-7788 이상 15개 지역 단체에서 동문회 소식을 전할 기자단이 구성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면서 지역 동문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동문께서는 가장 편한 마음으로 전화해주십시오. 또한 동문 기자단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동문 사무실을 통해 지역 소식을 전해줄 기자 한명씩을 추천해주십시오. ▲인쇄편집 임화섭 14회(금성기획) ▲총동문회 사무국 송예경 총무

충동문회편집실 전화 042) 252-5656 / 편집위원장 이석호(15회, 010-5421-2838) 올림

“동문 우의증진 취지 맞게 총동문회 발전만 바라보고 정진”

〈서경원 총동문회장 취임사〉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동문 후원과 참여 유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과 후배님, 각 지역 각 기수 각 직종 동문회장님 임원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제19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막중한 소임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동문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깊은 애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고생하여 주신 전임회장님들을 포함하여 고문님들과 이사님, 자문위원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보이지 않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과 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여 년의 사회생활 속에서 늘 동문은 제 곁에서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문 선배님과 후배님들은 제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지근거리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동문 화합과 노력을 다짐하는 취임사를 하고 있다.

그러한 저의 마음은 동기들을 중심으로 선배님과 후배님들의 총동문회장 제의가 있었을 때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망설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동문들에게 받은 크나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도 하여 제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저는 지난 6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선배님 후배님들께서 오늘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많은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총동문회의 밝은 미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동문회를 일신하고,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정열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먼저 총동문회회칙이 정하고 있는 동문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발전이라는 설립목적과 이의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장학사업과 동문 간의 친목도모와 우의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오로지 총동문회의 발전만을 바라보고 정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의 실천 방안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 회보의 발행과 SNS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오늘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친목단체로 남아서도 안되고, 단순한 선배와 후배가 줄서기 하는 특수단체로 전락되지 않았을 때 오늘은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문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각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동문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이임하시는 강신열 회장님를 비롯하여 18대 집행부와 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동문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만 취임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제19대 총동문회장 서 경 원 올림

“좌고우면 하지 않고 임원들이 솔선수범 자세로 뛰어달라”

〈제19대총동문회 집행부 상견례〉 이재일 수석부회장, 임헌표 사무총장, 각 국장 임명장 수여

이재일 수석부회장

임헌표 사무총장

홍준용 사무국장

공대성 재정국장

권오진 사업국장

김성기 복지국장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6월 17일 오전 11시 총동문회사무실에서 제19대 총동문회 집행부 임원 상견례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우리 충기 총동문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선배들의 헌신과 후배들의 땀방울이 합쳐져 온 결과”라며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진하는 자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또한 “앞으로 동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임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이재일 수석부회장, 임헌표 사무총장, 홍준용 사무국장, 공대성 재무국장, 권오진 사업국장, 김성기 복지국장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동문회를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두 분 희생이 대한민국 지킨 원동력, 나라 수호 동참하자”

오영안 장군 · 임재엽 상사 추모식 6월 3일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봉행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후배 2명에게 오영안 장군과 임재엽 상사 장학금을 전달했다.

임재엽 상사 부모가 모교 후배 2명에게 임재엽 상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3일 오전 10시 충남기계공고 교정에 위치한 호국영웅동산(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에서 이 학교 동문인 고 오영안 장군 26주기, 고 임재엽 상사 12주기 추모식이 임재엽 상사 부모와 서경원 총동문회장과 동문들, 이종업 모교 교장과 교직원,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 홍승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조용수 대전중구재향군인회사무국장, 정종호 충호안보연합대전충남지부장과 회원들, 모교 학교운영회 노진우 부위원장과 김순옥 학부모 대표 등 학부모들과 올해 창단된 모교 군특성화 임기제부사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매년 이 행사를 주최한 607기무부대가 3년 전에 갑자기 해체됨에 따라 3년 전 행사는 학교측이 맡았다가,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총동문회에서 주최했다가 올해 행사는 학교가 맡아 진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강석종 모교 교감이 오영안 장군과 임재엽 상사에 대한 약력보고가 있었다.

오영안 장군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도중 순국했고, 임재엽 상사는 2010년 북한군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바쳤다. 이에 두 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남기계공고 교정에 지난 1999년 6월 5일 오영안 장군 동상과 2014년 3월 12일 임재엽 상사 동상을 건립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비석의 글씨가 흐려지는 등 보수의 필요성이 커지자 2020년 5월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들여 동상비석을 오석으로 말끔히 단장하고, 야간조명시설까지 설치하여 모교 호국영웅동산이 명실상부한 호국추모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두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됐다”며 “자랑스런 두 분의 희생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업 모교 교장은 “두 분의 순국정신을 이어받아 올해 모교가 군특성화과정 학교로 선정되어 오늘 모교 후배인 부사관후보 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며 “무한가능성의 꿈을 갖고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기술부사관으로서 투철한 군인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재엽 상사 부모를 선두로 참석한 내빈과 서경원 총동문회장과 동문들, 이종업 교장과 교직원, 충호안보연합회원들, 학교운영위부위원장과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가 헌화 및 분향했다. 이어 참석한 사람들이 두 분의 호국영웅에 대해 경례했다.

모교 3학년 기술부사관후보생들이 호국영웅 두 분 선배에게 경례하고 있다.

호국보훈행사를 마친 후 충기 동문들이 임재엽 상사 부모와 자리를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모교 재학생 2명에게 오영안 장군 장학금과 임재엽 상사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임재엽 상사 부모도 임 상사의 연금을 모아 모교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석호 편집위원장 –

동문골프팀 청주공고 제압 하반기 16강행

〈SBS배전국고교동창골프〉 예선전 조 2위로 32강전 진출

모교 동문 골프팀(단장 전종현)은 6월 20일 오전 블루원상주골프장 동코스에서 열린 SBS배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 하반기 32강전경기에서 강호 청주공고를 2업차(8번홀서 경기 종료)로 이기고 16강전에 진출했다. 모교 팀은 6월 27일 오후 4시부터 블루원상주골프장 서코스에서 공주생명과학고와 8강행을 다툰다.

모교팀은 전종현 단장의 리더로 올해 심기일전하여 허영준 주장(25회)과 이문휘 선수(27회)의 기존 선수에다가 16회 박로환 선수가 가세하여 지난 6월 13일 열린 예선전(총 148개교 출전)에서 46개 학교가 참가한 1일차 예선경기에서 조 2위로 32강전에 진출한 바 있다.

전종현 단장과 선수들은 경기를 마친 후 “모교의 명예를 걸고 우승을 향해 전진하겠다”며 “방심하지 않고 매 경기를 결승전처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문휘 골프팀 총무 –

충기동문골프팀이 시합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코로나 긴 터널 지나 모처럼 인천동문들 만나 기쁘다”

〈인천동문회 6월 월례모임〉 서경원 총동문회장 참석, 총동문회에 200만원 전달

인천동문회 동문들이 오랜만에 화합을 위해 단체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인천 동문들이 서경원 총동문회장에게 동문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동문회(회장 김창국. 18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6월 월례회를 부평 삼현가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인천 모임에는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먼 길을 마다않고 참석하여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인천동문회는 김창국 회장을 비롯해 29명이 참석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김창국 인천동문회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인천동문회는 이날 서경원 총문회장에게 동문회보 및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전종현 전총동문회장 100만원, 김창국 인천동문회장 50만원. 인천동문회50만원)을 전달했다. 동문 선후배 동기들은 모처럼 갖는 모임에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와 곡차를 나누며 환담을 나눴다.

김창국 인천동문회장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모처럼 만에 인천동문회 모임을 가져 기쁘다”며 “인천에도 많은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소식을 몰라 상호교류를 못하고 있으리라 사려 되어 총동문회 밴드와 동문회보를 통해 연락처를 공유하고자 하니 인천동문회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락처=
김창국 010-5233-0551(18회),
황덕수 010-3738-9717(19회),
진관섭 010-8929-9790(20회),
김봉호 010-5442-1744(21회),
김영수 010-9733-3670(22회),
강신철 010-8776-1568(25회).

– 강신철 인천 기자 –

“휴전선과 대치 지역에서 동문들 만남은 삶의 활력소”

〈경기북부동문회 6월 정기모임〉 “지역 동문회 소식 기다리는 일이 자그마한 행복”

남한에서 가장 최전방에 사는 경기북부동문들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 동문들이 이재일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북부동문회(회장 김용진 11회) 6월 정기모임이 6월 16일 저녁 남궁중국요리집에서 모교 총동문회 이재일 수석부회장(15회)과 전종현 총동문회 고문(전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유재환(11회)경기 동북부회장과 송영호(3회. 수석 고문), 배기룡(3회,고문), 김흔식(6회 전 국세청 본청 주무과장), 최성구(12회. 전 회장), 강희창(12회. 전 회장), 이동희(12회. 고문), 최재흥(14회), 김승환(14회), 최현국(14회), 최용선(15회), 최기춘(15회. 부회장), 류은선(16회.부회장), 한흥석(17회, 신입), 김경수(19회), 임동현(21회), 박덕신(23회. 재무국장), 신병철(25회, 총무국장), 조우석(27회), 강문식(28회) 동문이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경기북부동문회 동문들은 지난 5월 21일 심학산 산행의 감흥이 생생한 가운데 다시 만나 밤늦게 까지 환담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총동문회 이재일 수석부회장(15회)이 참석하여 뜻 깊은 모임이 되었다. 이재일 수석부회장은 총동문회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한 전종현 총동문회 고문도 바쁜 가운데 참석하여 후원금을 내주었다. 경기북부동문들은 동문들의 뜻을 모아 총동문회 발전기금으로 200만원(개인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용진 경기북부동문회장은 “우리는 휴전선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 살면서 동문들과의 만남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며 “언제부터인가 설송소식지를 기다리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동문회 소식을 기다리는 일이 자그마한 행복이었다”고 회고했다.

– 임동현 경기북부 기자 –

동문소식 제보 안내

동문회수별 및 단체 동문 소식과 개인동정을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전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그립고 보고 싶었던 선후배 만나 소소한 일상 느껴”

안산동문회 오랜만에 월례모임 총동문회에 발전기금

안산동문회 (회장 조병화)는 6월 22일 저녁 보고싶었던 선후배 동문들과 오랜시간 진행하지 못했던 정기 모임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의 집합금지 명령에 일상생활의 제약은 쉽고 사소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더 한번 생각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모임을 통해 안산동문들은 그립고 보고 싶었던 선후배들을 만나 소소한 일상으로의 모임을 행복하게 가졌다. 이 자리에는 충기총동문회 서경원 회장과 이재일수석부회장님이 함께 하여 축하의 말씀과 금일봉을 전해주었다. 이에 조병화 안산동문회 회장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안산동문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 11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안산 동문들은 끝으로 충기동문의 화합과 발전을 바라는 화이팅을 외치며 행복했던 시간을 한장의 사진으로 남기고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 김종민 안산동문회 기자 –

안산동문회 동문들이 서경원 총동문회장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건강과 동문회 발전 방향 토론”

천안동문회 6월 월례회, 양평해장국식당에서

천안동문회(회장 서정훈. 16회)는 6월 16일 양평해장국식당에서 6월 월례회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은 7회 임창홍 선배 등 20여 명의 선후배 동문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임창홍 선배와 임세환 선배는 동문들의 건강을 꼭 챙기라는 당부의 말씀과 동문회 발전방향등 좋은 얘기를 해주었다. 이날 임세환 전 총동문회 회장은 모임 식사비를 찬조하여 동문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천안동문회는 지난달에 모임을 가진 데 이어 6월 모임을 가졌고 내달에도 과거처럼 매월 월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임장소는 22회 김인경 동문이 운영하는 양평해장국식당이다. 서정훈 천안동문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의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며 “건강에 유의하면서 모임에서 만나 회포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 이영규 천안동문회 기자 –

30회동문회 무주 가족동반야유회

졸업30주년행사 추진위 발대식도 개최

충남기계공고 30회동문회(회장 이정근)는 6월 4일부터 6월 5일 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가족야유회와 졸업30주년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30회동문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에 경석현 동문을, 사무국장에 이진혁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행사에 동기들 외 가족포함 약 75명이 참가했다.

이정근 30회동문회장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30주년 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취지아래 구성하게 됐다” 며 “앞으로 저희 30기 동문들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선배님과 후배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고득철 30회동문회 총무 –

“서울동문회 7월 9일 창립총회 개최”

출범 앞두고 6월 18일 추진위원회 모임

서울동문회가 7월 9일 창립을 앞두고 추진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서울동문회는 정식 출범을 앞두고 6월 18일 오후 5시 행주산성 식당에서 추진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가운데 이춘성(11회), 김태환(11회), 김용진(11회), 윤봉중(12회), 육정관(15회), 오욱(16회), 윤중길(19회), 송석진(21회), 임동현(21회) 동문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조율하고 서울 동문회 발족을 위한 회칙의 기틀을 잡았다.

▲명칭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서울동문회
▲약칭 : 충기공 서울동문회
▲초대 회장 : 윤봉중(12회)
▲초대 사무총장 : 송석진(21회)
▲창립 모임날짜 : 7월 9일(토)
오후 5시
▲장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05
당산역 해링턴타워 206호 비원

<공지 사항>

서울지역 선후배님들께서는 7월 1일까지 총동문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추진위원들에게 참석여부에 대해 연락을 주십시오. 성함, 졸업회수, 주소(동문회보 받을 주소)를 알려 주세요.

장소 예약이나 명찰 등 원활한 모임을 위해 참석 여부를 반드시 준비위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총동문회 사무실 :
전화 042-252-5656
팩스 042-584-5658
▲준비위원 연락처
송석진(21회)
초대 사무총장 010-3485-7703
임동현(21회)
초대 홍보국장 010-3458-2446

서울동문회 추진위원장 이춘성 올림

“서울동문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그 형(황인범)에 그 아우(국가대표 16세 이하 2명) 축구 잘 한다”

모교 축구팀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교축구 3위 차지

모교 축구팀(대전하나시티즌 18세 이하 팀)이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모교 팀은 K리그 산하 유스 23개 팀 중 21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울산 U-18, 경남 U-18을 꺾었고 부천 U-18과 비기며 2승 1무를 기록했다. 승점 7점으로 부천 U18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 차로 조 2위로 12강 본선에 진출했다. 모교팀은 12강전에서 2022 K리그 주니어 U18 전기 리그 중부권역 3위 팀 FC서울 U-18과 맞붙어 상대에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전반전 종료 직전 터진 유선우의 동점 골을 시작으로 2골을 더 뽑아내며 3-1 역전승으로 8강에 올랐다.

8강에서 중부권역 우승팀 강원 U-18과 만난 모교팀은 2-2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며 승부차기로 향했다. 이어 골키퍼 우규정의 선방 속에 5-4 짜릿한 승리를 따냈다.

예선부터 8강까지 까다로운 상대와의 승부를 이어온 모교팀은 4강전에서 K리그 주니어 U18 전기 리그 남부권역 우승팀 강호 전주 영생고(전북 U18)과 결승 티켓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전북 U18은 조 편성운이 따르면서 단 3경기만 치르며 준결승전에 올랐다. 모교팀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불리한 채로 전북 전주 영생고와 마지막까지 투지를 발휘했지만 체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0-4로 패하며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오세종 감독은 “쉽지 않은 대진 속에서 경기를 치르며 선수들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다시 준비해서 곧 있을 챔피언십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라고 전했다.

모교팀은 올 시즌 춘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3위를 시작으로 K리그 주니어 U18 전기 리그 남부권역 준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3위에 오르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오는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2022 GROUND.N K리그 U18&U17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모교팀은 또한 1학년 후배들이 국가대표(U16)에 2명이 뽑혀 현재 월드컵 국가대표로 맹활약 중인 황인범 동문을 이어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전국 강팀으로 떠오른 모교 축구팀이 전국대회 3위에 입상한 후 환호하고 있다.

“14회 동문회 새로운 집행부 출발”

코로나로 주춤했던 단체여행 준비

14회동문회는 6월 17일 유성의 모 음식점에서 31명의 친구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백채준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강신열 회장 중심으로 14회를 잘 이끌어왔고 앞으로는 새로운 회장 체제로 14회를 활성화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14회 모임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건으로 제시되었던 40주년 기념행사후 여행의 건은 7월에 운영회의를 거쳐 8월 정기모임에서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애경사시 몇 명씩은 볼 수 있었지만 간만에 한자리에서 만나 특히 건강에 대한 안부를 대화로 우정을 나누는 행복한 자리가 되었다.

– 오승준(14회) 공주동문 기자 –

“올해 졸업40주년 성공적인 행사 준비”

17회동문회 모임 서경원 총동문회장 격려

17회동문회(회장 윤영문)는 6월 17일 대전 중구 유천동 청춘회천국식당에서 16명이 참석하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최근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15회 서경원 회장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함께 금일봉까지 희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7회 동기들은 올해 졸업 40주년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

윤영문 회장은 “17회 동기들 간에 끈끈한 정을 돈독히 하고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는 모임이 되자”며 “졸업 40주년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민운기 17회동문회 총무 –

“좋구나 좋다. 그냥 가자! 평창으로~”

경기도 동문들 모교후배축구팀 응원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출전한 모교 재학생 선수들이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이종업 모교 교장으로부터 전해 듣는다. 가슴 뭉클한 뜨거운 피가 용솟음친다. 아 그리운 나의 모교 충남기계공고. 잠시 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는 유재환 경기동북부동문회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일요일 아침 9시. 어느새 우리(유재환 11회 의정부,신병철 25회 파주) 3명은 경기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 진부로 향하고 있었다.

3시간 반을 달리는 동안 유재환 회장님은 지난 66년간 삶의 여정의 보따리를 풀어 놓으셨다. 나름 경제적 성공을 이뤄내시고 주변에서도 칭송받는 삶이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학창 시절에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야말로 살맛나는 인생 아니냐고 하신다. 솔선수범하시어 동문들을 더 챙기고 도와주고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 경기북부 동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받으시는 유재환 회장님과 동행한 하루는 행운이었다.

이날 목이 터져라 후배들을 응원했다. 비록 후배들이 결승행은 좌절됐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유재환 회장님은 모교 축구팀 후배들과 오세종 축구감독, 김영식 지도교사에게 격려하면서 위문성금 100만원을 쾌척하셨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미래가 무궁무진한 모교 후배 들이 언젠가는 우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임동현 경기북부 기자 –

수입 현황

기간 : 2022년 5월 26일 ~ 2022년 6월 21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상	2	도인선	100,000
방	2	황인정	20,000
전	3	이우정	20,000
전	3	홍명표	20,000
방	4	송석범	20,000
자	6	김명수	20,000
방	7	이병옥	20,000
자	8	이창주	50,000
전	8	임헌표	50,000
광	10	이기성	50,000
기	13	마평춘	5,000
화	13	유병돈	200,000
기	13	이형기	20,000
기	15	김재우	20,000
기	15	민세기	20,000
기	15	안기원	20,000
기	15	유정식	20,000
기	15	윤현국	20,000
기	15	이 인	20,000
기	15	이교진	20,000
기	15	이병걸	20,000
기	15	최종근	20,000
전	16	박로환	20,000
기	16	양승후	20,000
기	16	양희대	2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기	16	이재근	20,000
기	16	이재흥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16	조성서	20,000
기	16	지상무	20,000
기	16	최선묵	20,000
기	17	나준헌	2,000
기	19	강정규	200,000
전	19	최철균	500,000
전	21	임동현	1,000,000
배관	21	정구철	20,000
기	21	진춘식	100,000
기	22	김갑수	20,000
기	23	이영규	20,000
전	28	신재광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단체		26회동문회	100,000
		경기북부동문회	1,000,000
		인천동문회	2,000,000

정기총회

자	1	송주영	50,000
상	1	오응수	100,000
광	3	서한수	50,000
기	12	전종현	300,000
기	12	정찬목	50,000
전	12	한영식	100,000
기	13	송승용	50,000
기	13	송재길	200,000
화	14	윤재중	100,000
기	14	임화섭	100,000
기	15	이재일	200,000
기	15	정두현	200,000
기	15	최상규	200,000
전	16	한흥교	50,000
기	23	김덕규	50,000
기	31	강두현	50,000
기	31	권오진	50,000
단체		16회동문회	30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소모임이 모여 새롭게 창립 의미 크다"

전기과 21회동문회 창립 초대회장 오원석 동문

전기과 21회 동문들이 6월 18일 저녁 대전 괴정동 소재 숯불고기향 기식당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전기과21회동문회는 초대 회장으로 오원석 동문을 추대했고, 총무에 강기환, 재무에 이승기, 감사에 신국현 동문을 각각 임명했다. 전기과 21회동문회는 올해 11월에 정기총회를 열고 차년도 수석부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원석 초대 회장은 "많은 기수에서도 비슷하겠지만 전기과 친구들도 수도권 대전 등에 끼리끼리 소모임이 많지만, 모처럼 전체가 모여 새로운 창립식을 갖고 출범하게 되어서 더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 강기환 전기과 21회동문회 총무 –

전기과 21회동문회가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기계과 8회(야간) 모임 계획

보고픈 친구들 연락 주세요
모교를 졸업한지 벌써 50년이 지나 이제 옛 학우들이 그리워지는 나이입니다.
8회 기계과(야간) 학우들을 보고 싶습니다. 연락 되면 모임을 주선하겠습니다.

*연락처: 김현식(010-4433-7360)

발전기금 성원해주신 동문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요즘, 총동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걱정하여 발전기금을 성원해주신 동문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총동문회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동문회장 서 경 원 올림

"동문회보 활발하게 발행되기를 기원"

방직과 9회 청심회 군산 선유도에서 모임

방직과 9회 모임 청심회(회장 김순규)는 코로나로 인해 매월 열던 정기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군산 선유도, 변산채석장 등 서해바다로 여행을 다녀 왔다.

청심회는 김순규 회장을 중심으로 우정을 나누고 있는 데다가 소모임인데도 불구하고 회원 모두가 매년 총동문회 발전기금에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다.

청심 회원들은 "모교와 동문들은 항상 추억이고 인생의 활력소였다"며 "우리 모교 동문회의 자랑인 동문회보 발행이 중단 위기를 딛고 다시 활발하게 발행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김순규 청심회장 –

KIA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현대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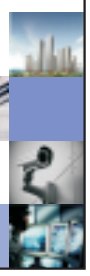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폐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그린플러그(주)
전기차 충전기 판매 · 시공

빠른 충전을 원하는 분들의 파트너
모든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를
판매, 시공하는 전문업체

대표전화 : 1533-2269
김영훈 이사 (21회) 010-8813-6905
주소 : 충남 논산시 연사면 계백로 2561

KIA Movement that inspires

(16회)
김 희 곤 (男祈) 한밭대리점/카마스터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Tel : 042-863-5454 Fax : 0504-466-5838
Mobile : 010-3300-5838
E-mail : kng7587@hanmail.net
A/S센터 : 080-200-2000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Mirmar coffee LOASTERS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禎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사회적협동조합
돌다리청림가
doldariro.com

돌청장애인보호작업장

기계과(15회)
서 경 원

생산(판매)품	카페운영, 빵, 우유 등 음료
직업재활훈련	제빵, 바리스타 등
전화번호 (주문)	Tel 042)272-1006 Hp 010-5455-7531
	E-mail gwseo590401@hanmail.net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돌다리로36(석교동)
후원계좌	하나은행/627-910017-54005 돌다리청림가 사회적협동조합(공익법인)

---

kt biz 공식파트너

HTM NET & COMMUNICATION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감시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Asung
(주)아성전기조명상사

대 표 표 광 열 (11회)
010-9252-1685
◆ LED조명기구, 전선류
◆ 나노 배선기구
◆ 위너스 배선기구
◆ 번개표 조명
◆ 각종 전기용품도소매 총판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 4(대흥동)
TEL : (042) 253-1625 / 226-1625
FAX : (042) 222-1625
E-mail : asung430@naver.com

NH NongHyup
농협홍삼

차장 김 병 설 (전. 29회)
010-5456-3966

면역력 향상으로 건강 증진!
한삼인 농협홍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TEL : 043-835-8585
FAX : 043-835-8536
E-mail : kbs-75@hanmail.net